

### 이런 후 건강칼럼

< 3 >

#### 마음 한길 사람속 왜 모를까

우리가 사물을 지각한다는 것은 오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시각을 통해 모습을 볼 수 있다. 눈은 대상물의 형태를 볼 수 있는 기관이다. 키가 크다든지 몸이 통통하다든지 눈으로 보면 알 일이다. 귀로 소리를 듣는다. 대상의 목소리를 통해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를 안다. 눈을 감아도 같은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청각 덕분이다. 코로 냄새를 맡아도

할 것이다. 그러나 오관이 건 강한 사람에 비해 지각에 제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모든 지각의 대상물은 실체가 있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은 그 모습을 어떤 형태로든 지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으니 볼 수가 있겠는가. 소리가 없으니 들을 수가 있겠는가. 마음이란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신체처럼 볼 수가 있는 것이 못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의 마음은 참 좋다"거나



#### 실체없어 겉모습 보고 짐작

대상을 분별할 수가 있다. 피부로 만져 느끼는 촉각도 대상을 지각하는데 중요하다. 가령 눈먼 장님이 손으로 더듬어 보고 대상을 감별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는데 피부의 촉각이 대상지각에 동원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입맛을 아는 혀도 지각하는 기관으로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그리고 맛을 보는 오관이 대상 지각에 동원되는 우리 인체의 감각기관들이다. 오관 가운데 어느 한 기관이 탈이 나있으면 대상을 지각하는데는 그만큼 제한이 있게 된다. 눈이 멀면 볼 수가 없을 것이고 귀가 먹으면 소리자극을 수용하지 못

"저 사람의 마음은 아주 고약하다"는 등의 말을 자주 한다. 꼭 마음을 본듯이 말하고 마음의 소리를 들은 듯이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체와 같은 모습으로 지각할 수는 없는 것이 마음이다. 마음을 오관을 통해 직접 볼 수가 없으니 그 깊이 인을 측량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의 몸은 직접 오관을 통해 지각할 수가 있지만 마음은 신체처럼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지각할 수가 없다. 다만 나타나는 여러가지 모습을 보고 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하고 짐작할 뿐이다.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없으니 알기도 어렵고 혹시 안대도 틀리는 경우가 많게 된다.

### 매일 죽는 여자

②

그 다음날부터 일체 다른 치료는 중단하고 화상치료만 한달을 넘게 하였다. 남편은 통증에 시달린 나머지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아파 있었다.

그가 처음 주인공 공부를 접했을 때는 굉장한 환희심으로 직접 「신행도(信行道)」를 만들어 유창하게 포교를 했고, 얼굴의 사이귀를 관법만으로 떼어내고, 심하게 벗겨지던 발바닥까지 말끔하게 치료할 정도였다. 그런 체험과 신심은 모두 어딜갔을까? 이상하고 답답하여 '왜 주인공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대냐?'고 하면 자기도 주인공에 관하고 있으니 걱정말라고 편지를 주기 일쑤였다. 급기야는 입을 막고 하느라고 '계속 잔소리하면 잘어도 안나갈 것이니 나도 못나가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더니 어느날엔 앞에 있는 것도 귀찮으니 나에게 편지를 쓰라고 했다. 내가 곁에 있으면 부담스럽고, 귀찮고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결국은 자기 혼자서 아픈 것 아니냐는 억지를 부렸다. 그의 강압에 밀려 군인간 아들의 방으로 내 거처를 옮겼다. 밤이면 혼자 악을 바르려고 의자에 앉아 신음하는 그를 보다가 못마음을 다져먹고 큰스님을 뵈었더니,

"그 사람이 주인공을 알면 열심히 관하라고 하세요."

집에와 큰스님의 말씀을 전하자 남편은 '누가 사키지도 않는 짓을 하고 다니느냐?'며 역정을 냈다. 나는 비로소 보았다. 통증에 시달리는 사이 그의 마음 한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병신이 결빙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작은 촛불 하나로 그것을 녹여버리려 했다는 것을. 그것은 마치 작은 신발을 억지로 큰 발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나 다름없었다.



### 저들 부자와 난 무슨 인연으로 얽혀있을까

나는 남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감싸안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의 걱정이나 조인이란 그에게 상처만 더해줄 뿐이었으리라. 몇번이나 이불을 싸들고 안방으로 건너가 그의 곁에 자는척 누워있어도 남편은 번번히 나를 쫓아냈다. 그즈음 시아버님은 오른쪽 가슴이 몹시 쓰리고 아프시다고 했다. 여름부터 그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했으나 노환이라고만 함한 병명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점점 심해지셔서 병원의 응급실로 모셔왔다. 검사하시는 중에도 몸을 잘 지탱하지 못하여 나와 아들이 겨우 부축을

해드렸으나 의사의 소견은 절망적이였다. 경생을 감지하고 정렬하게 사시면 시아버님은 퇴직금마저 공사청부업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집까지 도로개방에 헐리는등 녹마에 많은 고생을 하셨다. 시집가기 전 시댁은 가난의 나락에 빠져있었다. 아버님이 실패하시는 바람에 4남매와 생계유지를 어머니가 맡아하셨다. 남자 55세, 아작은 정정하신 나이에 정년퇴직에 떠밀리신 아버님은 30년을 손을 놓고 사셨다. 남편은 그런 아버님을 무척이나 싫어했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안일하시다고... 가끔 아버님이 가슴을 쥐어뜯게 아파하시기도

동부쪽이라고 편지를 하곤 했다. 난 아버님이 딱하고 죽을 때마다 우리들의 인연의 줄을 생각했다. 저들 부자와 난 무슨 인연으로 얽혀 있는 것인가? 남편이 아버님을 미워하니가 저런 병이 걸린게 아닌가? 낚시를 무척 좋아하던 두 남자는 비슷한 시기에 가슴과 어깨를 앓고 있다. 혹시 수없이 가슴을 찢으며 죽어간 고기들의 영령이 붙어있는 것인가?

병원에 다녀오신 다음날, 12월25일 저녁까지 잠수하고 나서 아버님은 끝내 운명하셨고, 남편은 그 용으로도 장남의 위산을 잃지 않으며 무사히 장례를 마쳤다. 자식들에게 집 한채 못 물려주어 평생을 죄인처럼 살다가신 아버님. 막상 타계하시니 아버님의 큰 사랑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장례식 날은 온종일 진눈깨비, 싸라기눈이 내려 온통 질척거렸다. 그러나 장지에서 하강을 끝내는 두시간 반동안 날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짝 개었다. 먹장 구름사이로 자동차의 전조등처럼 밝고 환한 햇빛이 산경상을 비추더니 점차 바람이 멎고 조용한 봄날처럼 산새들마저 지저귀었다. 기적같은, 아니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주인공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돌았다. 49재를 돌리기가 지는 방화종이라 7일째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참석할 수 있었다. 홀로 생존해계신 어머니의 외로움이 내 가슴을 저미는 것 처럼 아팠다.

"아버님! 어머니를 잘 모실까요. 걱정마시고 다시는 운회의 바다에서 고뇌의 배를 타시지 마세요." 내 마음속의 눈물장은 울림이었다. 아버님 장례후, 눈물샘도 없는 남자만큼 알았던 남편은 한 열흘 술먹고 울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병은 더 악화되어 일체의 모임이나 사람 만나는 일도 기피를 하고, 병원에선 화상 치료를 하다 하다 결국은 폐고수술을 하게 되었다. 난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억지로 남편을 설득하여 큰 스님을 뵈러갔다. 스님은 친절히 관법에 대하여 알려주시더니 한 보따리나 되는 약을 주시며 "잘 먹어주세요. 나를 거예요." 이 언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Then said the Exalted One: Sujātā, a man may have these seven kinds of wives. What seven? One like a slayer, one like a robber, one like a mistress, one like a mother, one like a sister, one like a companion and one like a handmaid. These, Sujātā, are the seven; and which of them are you?

#### 영어로 배우는 경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선어인아, 남자는 이런 일곱종류의 아내를 얻을 수가 있다. 일곱가지란 무엇인가? 살인자같은 아내요, 도둑같은 아내요, 친구같은 아내요, 여주인같은 아내요, 어머니같은 아내요, 누이같은 아내요, 종같은 아내다. 아들이 그 일곱가지이다. 그대는 어떤 아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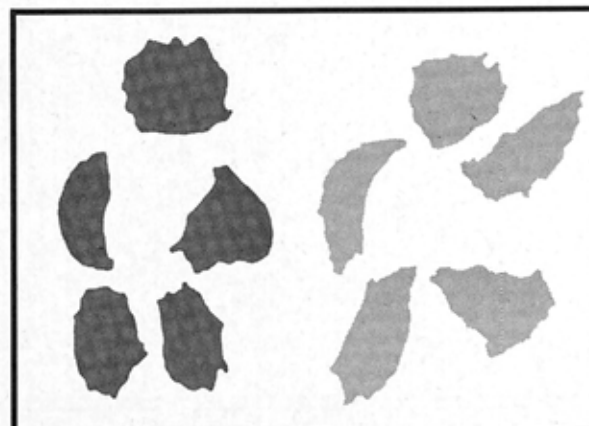
가? Lord, I do not fully understand what the Exalted One has put it so briefly. Well were it for me, lord, if the Exalted One would teach me Dhamma, so that I may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words spoken so tersely by the Exalted One.

#### 육아경 ②

부처님, 저는 세존께서 간후려 설하신 바를 잘 알지 못하였나이다. 저에게 법을 가르쳐주신다면 세존께서 간결하게 설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겠나이다. Then pay heed, listen, I will speak, Sujātā.

"그러면 선어인아, 잘들으라. 내가 설하리라." "Sujātā: 훌륭한 가문의 아들과 딸을 지칭한다. 여기서는 선어인으로 번역하였다. \*팔리어로 Dhamma는 법, 진리, 도(道)이다. \*세존: 부처님의 열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뜻이다.

더 쾌적하게, 더 편리하게, 더 건강하게-



## 인간중심

■ 이미지 마크의 의미  
다정하게 어우러진 한쌍의 형상은 인간과 자연을 상징합니다. 조화속에 공존하는 인간과 자연-그 아름다운 하모니가 금호건설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 국내 최초로 P.C. 부문 ISO 9001인증 획득!
- 제7회 전국제안대회 최우수상 수상!

# 금호타운은 인간생활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금호타운 설계시공의 원칙은 인간중심-  
진정 인간이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는 살내 색상으로부터  
지하공동생활공간과 조경시설에 이르기까지  
금호타운은 인간생활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이사는 최적공간을 창조하려는  
금호타운의 인간중심-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b>색</b>	이피트 실내색상을 3종류 (외벽색계열, 그린계열, 메이지계열) 로 제시하여 입주자 취향에 맞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의 아파트 실내문화를 실현하였습니다.
<b>정</b>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앙집중식 정수시설을 도입하여 샘물은 부드러운 단물로 바꾸고, 불순물 및 오염물질은 중앙집중식으로 깨끗이 정수한 후 각 가정에 공급합니다.
<b>생</b>	지하에는 입주자들이 자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민공동 생활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공간이나 체육단련실, 또는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놀 수 있는 놀이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b>조</b>	아름다운 수로와 분수대, 상록수림 등의 시각공간과 계단식으로 설계된 대화공간, 현대감각의 장식벽과 통나무 기둥으로 설치된 사색공간 등 도심속에 자연의 느낌을 살려 드립니다.
<b>경</b>	21세기형 첨단 전자경비 시스템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집중관리하므로 안전은 물론 관리비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홈오토메이션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면 모니터를 통하여 거실에서 방문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 토지개발공동사업, 빌라·단독주택은 금호건설에 맡겨주십시오.  
■ 문의전화: (02)758-1977~8

